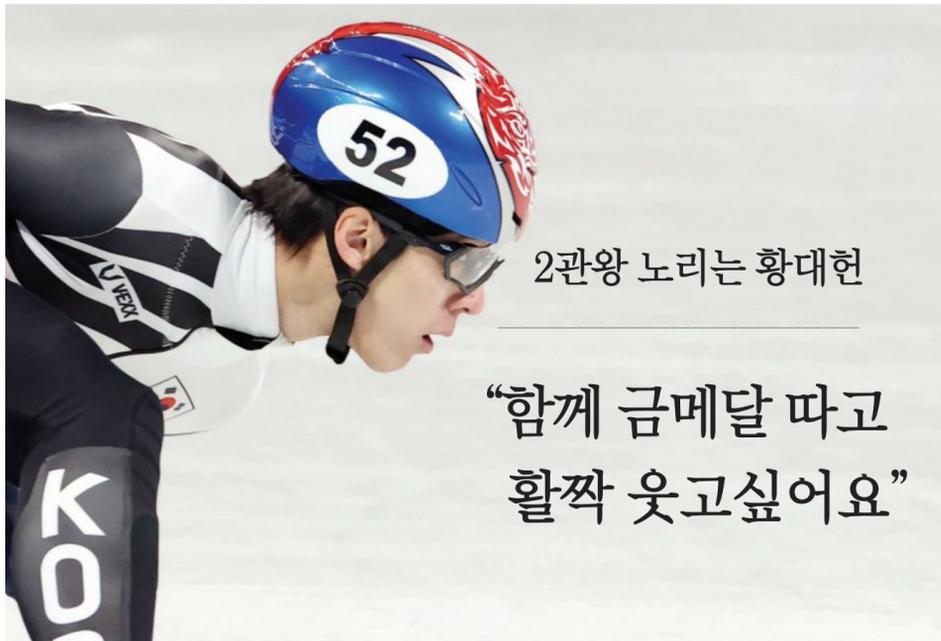


쇼트트랙, 이대로 끝낼수는 없다... 마지막 불꽃 질주



2관왕 노리는 황대헌

“함께 금메달 따고 활짝 웃고싶어요”

“오늘 밤 남자 5000m 계주 결승... 편파판정 신경 안 써 경기에 집중”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부터 4개 대회 연속 다관왕을 배출했다.

토리노 대회에선 쇼트트랙 안현수(리시아명 빅토르 안·중국 대표팀 기술코치)와 진선유(KBS 해설위원)가 각각 3관왕에 올랐고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선 쇼트트랙 이정수(KBS 해설위원), 2014년 소치 대회 댄 쇼트트랙 박승희(SBS 해설위원)가 2관왕을 차지했다.

안방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선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2관왕에 올라 다관왕의 명맥을 이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다관왕에 도전하는 선수가 있다.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황대헌(강원도청)이다.

남자 1,500m에서 우승한 황대헌은 16일에 열리는 남자 5,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면 이번 대회 첫 2관왕이 된다.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은 4개 대회 연속 이어진 동계올림픽 다관왕 배출에 실패한다.

황대헌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는 15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공식 훈련을 마친 뒤 “주변의 기대가 부담되긴 하지만 (2관왕 달성)이 욕심난다”며 “모두가 마지막에 활짝 웃고 싶다. 후련하게 금메달을 따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과 경쟁한다.

원래는 4개 팀이 경쟁하는데, 준결승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중국이 어드밴스를 받아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엔 무려 20명의 선수가 된다.

황대헌은 “계주는 변수가 많은 종목인데 선수끼리 뜻이 잘 맞아야 한다”며 “현재 선수들은 선수촌이나 경기장에서 많은 대화를 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편파 판정 여지에 관해선 머릿속에서 지운 듯하다. 자신에게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황대헌은 “사실 중국 외에도 기량이 좋은 팀이 많다”며 “중국엔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대헌은 ‘배구 여제’ 김연경에 관한 고마움도 표현했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4강 신화를 이끈 김연경은 황대헌과 같은 소속사에 속해있다. 아울러 김연경은 지난 남자 1,000m 경기 때 소셜미디어에 편파 판정에 관한 비판 목소리를 올리면서 황대헌을 응원하기도 했다.

황대헌은 “아직 김연경 선수와 만날 기회가 없었다”며 “팬으로서 멋진 선수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가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00m 도전 최민정

“메달의 소중함 느껴 진심, 금 따고 싶어”

“지난 4년간 준비된 것 마무리... 한국 선수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 도전”

2018년 평창 대회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 최민정(성남시청)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베이징올림픽 마지막 경기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15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진행된 마지막 공식훈련에서 차분하게 몸 상태를 점검했다.

16일 경기를 앞두고 있는 최민정은 생각이 많은 듯했다. 그는 훈련을 마친 뒤에도 경기장을 쉽게 떠나지 않고 생각에 잠겼다. 훈련 뒤 만난 최민정은 “마지막 훈련이었는데, 특별한 감정이 들더라”라며 “내일 경기는 지난 4년간 준비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이번 대회를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항상 장거리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며 “책임감을 느낀다.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최민정은 여자 1,500m를 앞두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훈련을 소화했다.

여자 대표팀은 14일 여자 3,000m 계주 메달 수여식 일정 때문에 공식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최민정은 쉬지 않았다. 홀로 보강훈련을 하며 여자 1,500m 경기를 준비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경기를 치렀기에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보강 운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 1,500m 경기엔 많은 것이 달려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2개를 목에 건 최민정은 한국 선수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에 도전한다.

만약 메달 획득에 성공하면 전이경(금4·동1), 박승희(금2·동3·이상 쇼트트랙), 이승훈(금3·은2·스피드스케이팅)과 함께 총 5개의 메달로 한국 동계종목 올림픽 최다 메달 공동 1위가 된다. 아울러 금메달을 따면 여자 쇼트트랙은 올림픽 3개 대회(2014년·2018년·2022년) 연속 금메달 획득을 이어가게 된다.

최민정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메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라며 “진심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 1,500m는 변수가 많은 종목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스웨딩이다. 그는 다행히 준결승전에서 같은 조에 편성되지 않았다.

최민정은 “국가대표 생활을 8년 정도 했는데, 경쟁 상대는 계속 바뀌었다”며 “그동안 경쟁했던 모든 선수는 내게 자극제가 됐다.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딩도 내겐 그런 선수”라며 “함께 경쟁하면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영미가 일본에 강한 이유? 대회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여자 컬링 일본 꺾고 3승 3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에서 ‘영미~’ 열풍을 일으켰던 김영미(강릉시청)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라이벌’ 일본을 상대로 ‘비밀 병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국 컬링 여자 국가대표 팀 김(김은정·김경애·김선영·김영미·김초희)은 14일 중국 베이징의 국립 아쿠아티크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부 풀링 6차전에서 일본에 10-5 완승을 거뒀다.

3승 3패가 된 한국은 남은 세 경기 결과에 따라 4강 진출 가능성을 이어가게 됐다.

만일 이날 졌더라면 2승 4패가 되면서 4강행이 희박해질 위기였던 한국은 김영미의 돋보이는 활약 덕에 값진 승리를 챙겼다.

김영미는 2018년 평창에서 스킵 김은정이 ‘영미~’하고 부르는 소리로 더 유명해진 선수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김영미가 교체 선수로 물러서고, 김초희가 리드를 맡아 김영미의 역할이 다소 줄었다.

김영미는 전날 중국과 4차전에 처음 출전해 경기 감각을 조율했고, 이날 일본전에서는 상대 스톤을 쳐내는 테이크 아웃을 14개 기록하며 팀 승리에 발판을 놔다.

경기가 끝난 뒤 임명섭 대표팀 감독은 “김영미가 일본에 강한 면을 고려해 오늘 투입했다”며 “올림픽 전부터 일본을 상대로는 김영미 기용이 정해진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정작 김영미 자신은 “일본에 유독 강하다는 평이 있다”는 말에 “그런가요”라고 반문했지만 코치진은 김영미를 일본전 ‘맞춤형 카드’로 준비했다고 공개했다. 올림픽 출전식에서 “일본을 이길 때가 됐다”고 말했던 김영미는 “제가 얘기한 것이 있으니 더 집중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김영미(가운데)가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립 아쿠아티크 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리그 6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스톤을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감독은 ‘김영미가 일본에 강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일본과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회가 끝난 뒤에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경기가 끝난 뒤 스킵 김은정은 지난해 12월 올림픽 자격 대회에서 일본에 2연패를 당한 결과에 대해 “그때는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긴장이 많이

됐다”며 “오늘은 두 번 졌기 때문에 더 집중했고, 오전 미국과 경기에 잘 안 된 부분을 생각하며 경기했다”고 말했다.

상대가 ‘라이벌’ 일본이라는 점을 신경 썼느냐는 질문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좀 쓰더라”며 “(일본 스킵인) 후지사와 사츠키와도 경

쟁의식을 갖기보다는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감독은 “오늘 하루 두 경기를 하는 힘든 일정이었기 때문에 내일 휴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은 세 경기에서 다 이기면 자격으로 4강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스위스 등 남은 상대도 잘 분석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도핑 위반 선수 올림픽 안 돼” 김연아, 발리예바 출전에 일침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도핑 양성 반응을 보인 카릴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허가한 판결을 두고 한국 피겨선수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피겨퀸’ 김연아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CAS의 부당한 결정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최다빈(고려대)은 14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김연아의 영문 메시지를 공유했다.

김연아는 14일 CAS의 발표 후 소신 있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최다빈은 곧바로 김연아의 메시지를 지지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싱글에 출전한 이시형(고려대), 평창동계올림픽 페어에 출전한 김규은, 국가대표 이해인(세화여고)도 같은 방법으로 동참했다.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낸 선수들도 많다.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김예림(수리고)은 14일 베이징 현지에서 공식 훈련을 마친 뒤 CAS의 발표 내용을 취재진에게 전해 듣고 “대다수 선수는 이 일에 관해 안 좋게 생각한다”며 “한 미국 선수와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는데, (정상 출전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 나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5위를 차지한 차준환(고려대)은 CAS의 발표 전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며 “도핑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스포츠에서는 깨끗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